

경남지방 씨족마을의 입지특성과 내부배치에 관한 연구¹⁾ - ‘朝鮮の聚落’ 수록 22개 마을을 중심으로 -

이규성
건축학부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경상남도내 22개 마을을 택하여 그들의 특성과 내부배치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 (1) 마을들은 고을의 관아로부터 이십오리 정도 떨어져 있어서 수령의 간섭을 덜 받고 씨족의 공동체를 구성하기에 유리하다.
 - (2) 마을들의 지형적 입지를 볼 때 크게 산지, 평야, 해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산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전체의 54.5%로 우세하다.
 - (3) 마을에 진입하는 방법은 통과형, 관통형, 종점형의 3유형이 있으며 이중 통과형이 14개 마을(전체의 63.6%)로 다수이다.
 - (4) 마을길의 형태는 나뭇가지형(12개소:54.5%), 그물형(6개소:27.3%), 복합형(4개소:18.2%)으로 나누어진다.
 - (5) 주택의 향은 남동~남서향이 전체의 82.5%로 나타난다.
 - (6) 마을에는 대부분 종가와 재실이 존재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당산나무와 경승지가 있다.
- 결론적으로, 경남지방의 전통마을들은 산지와 평야에 적절히 입지하고, 그 내부배치는 유교문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며 유기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Internal Layouts of Traditional Villages of Kyongsang-Namdo Area Formed in Chosun Dynasty

Lee, Kyu-Sung
School of Architecture

* 본 연구는 1995년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internal layouts of 22 traditional villages of Kyongsang-Namdo area formed in Chosun Dynasty.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 (1) Villages are distanced from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which discourages the influence of officials and encourages the self-governance of clan members.
- (2) Villages are located mainly in moutaineous area(valley and mountain slope), flat field and sea coast. The numbers of villages located in mountainous area are the largest(12:54.5%).
- (3) The types of access roads are passing type, penetrating type and terminus type. Of 3, passing type is the largest in numbers(14:63.6%).
- (4) The types of road networks are tree type, network type and complex type. Of 3, tree type is the largest in numbers(12:54.5%).
- (5) The main orientations of most houses(82.5%) are South-East, South and South-West.
- (6) In every village there are 1 Chongga(house of the family hierachically highest) and 1 or 2 Chaesil(commuanl building used by all clan members). And in several villages there are sacred trees and scenic objects such as trees, rocks and cliffs.

In conclusion, traditional villages of Chosun Dynasty are located at proper sites and their internal layouts of building and roads reflect the Confucious culture and are integrated organically.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조선시대의 씨족마을은 주로 농촌지역에 자리하여, 우세한 성씨가 집단거주하여 마을과 인근까지 세력을 뻗었던 자립적 공동사회로서 국가의 인재를 배출하고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던 중요한 집단이었다. 이들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조선시대의 마을형식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마을은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체과정을 밟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인재의 공급소이자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각인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에 와서도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유구를 많이 간직하고 있으며 마을의 구성에서도 전통적인 요소들을 보통의 마을들보다 잘 유지하고 있어 한국건축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씨족마을들 중 경상남도내의 대표적인 마을 22개를 중심으로 기존자료와 현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그들의 물적 요소들을 분석, 입지적 특성과 내부배치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대상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마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있던 일본인 인구지리학자인 善生永助가 쓴 “朝鮮の聚落” 3권(前篇, 中篇, 後篇) 중 後篇(1935년 발간) 6장을 참고로 하였다.

善生永助는 朝鮮の聚落 後篇의 머리말에서, 씨족부락(그의 용어에 의하면 ‘同族部落’)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조선연구의 기초가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의 마을에 대한 기술 중 씨족마을의 분석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1930년대 씨족마을은 전국에 걸쳐 약 15,000개가 존재하였으며 그 중에서 양반이나 유학자 등이 정착해서 이루어진 저명한 씨족마을은 전국적으로 1,685개, 이중 경상남도에 형성된 것은 135개였다.

善生永助는 다시 대표적인 마을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사항을 기술하기 위해서 특색있는 동족부락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들 마을에 대해서는 각각 14개의 자세한 항목²⁾을 설정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색있는 마을들을 선정한 기준은 엄격한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나, 그의 말에 의하면 “위치, 지세, 동족호수, 집단상황, 연혁, 자산, 종가, 경제, 배출인물, 자치, 사업, 시설, 단결, 교화, 풍습 등에 있어서 특별한 성격을 가진 마을들을 거의 망라하였다”고 술회하고 있다.³⁾

특색있는 동족부락은 전국에서 252개가 선정되었고 경상남도에서는 25개가 선정되었다. 이들은 善生永助가 보기에 경남을 대표하는 마을들로 간주된 셈인데 경상남도 전역에 걸쳐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가 선정하여 상세기술하였던 이 마을들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25개 마을 중 3개 마을⁴⁾은 댐의 축조로 수침되어 현재 그 자취가 없으므로 부득이 연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체 연구대상은 22개 마을로 축소되나(그림 1. 참조) 경상남도 내에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하며 표본수로서도 연구가 가능하므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들 연구대상 마을들의 일제기 명칭과 소재지는 표 1.과 같고 그들의 위치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이 된다. 각 마을에는 인용번호를 부여하여 논의에 편리를 도모하였다.

주2) 朝鮮總督府, 朝鮮の聚落 後篇, 1935. 723-724쪽

14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부락의 명칭 및 소재지 2. 소재지의 지세 및 지형 3. 부락내의 동족 성씨 및 그 호수와 인구 4. 동족 이외의 호수와 인구 5. 부락민의 주된 직업 6. 부락형성의 연혁 7. 부락의 대자산가 성명파 자산액 8. 부락민의 지주, 자작, 자작 겸 소작, 소작별 호수 9. 종가의 자산, 지위 및 聲望 10. 이제까지 부락에서 배출된 저명한 인물의 성명, 관직 또는 약력 11. 부락의 자치상황 12. 부락의 공동사업 및 조합, 講, 계의 연혁, 현상 및 규약 13. 문중재산 이용법 및 동족구제시설 14. 기타 보통부락과 비교해서 특색있는 점

이러한 조사항목은 건축학이나 지리학과 관련된 항목보다는 경제와 관련된 항목과 중요인물에 대한 항목이 많아서, 善生의 연구가 일제의 통치에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주3) 앞의 책, 723쪽

주4) 수침된 마을은 진주군 평거면 귀곡리, 울산군 삼동면 하감리와 울산군 삼동면 둔기리의 세마을이다.

표 1. 연구대상 마을의 명칭과 소재지 5)

마을 명칭	소재지	인용 번호	마을 명칭	소재지	인용 번호
勝山	진주군 지수면 송내리	<1>	松亭里	김해군 진례면 송정리	<12>
竹田里	의령군 봉수면 죽전리	<2>	東大洞	창원군 진전면 오서리	<13>
坪館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3>	鶴洞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14>
柳原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4>	松溪里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15>
舞沂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5>	虎頭	통영군 한산면 용호리	<16>
牽山里	창녕군 대지면 모산리	<6>	雲山里	하동군 양보면 운산리	<17>
校洞里	밀양군 밀양면 교동	<7>	下介坪里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18>
竹東里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	<8>	山圃里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9>
竹西里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	<9>	薑川里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20>
石川	울산군 웅촌면 석천리	<10>	葛溪里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21>
松亭	울산군 농소면 송정리	<11>	武陵	합천군 초계면 상대리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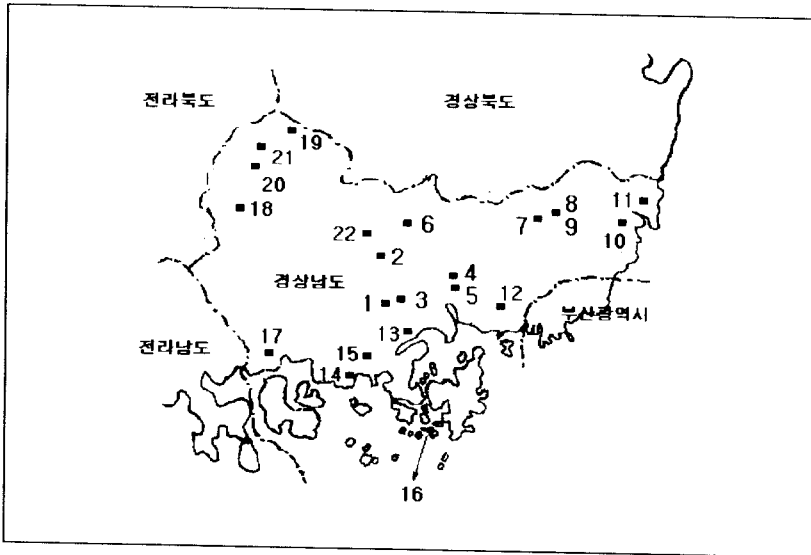


그림 1. 대상마을의 위치도

주5) 마을의 이름은 현재에도 그대로 호칭되고 있으나 마을보다 큰 행정구역 명칭은 최근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바뀐 곳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일세기 조사시점의 명칭을 그대로 썼는데 마을을 구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1-3. 연구의 방법

22개 마을의 입지와 내부배치를 축척 1/25,000 지형도와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이 가진 의미를 밝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문헌조사만으로 미비한 점은 현장조사로서 보완하였다. 현장조사는 필자가 직접 현지를 답사하여 행하였고, 현장자료의 수집은 사진촬영, 스케치, 주민면담의 정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2. 마을의 입지 분석

2-1. 官衙(도시)와의 거리

모두 농촌지역에 자리잡고 있어서 인근의 도시(조선시대의 郡이나 縣의 治所)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 각 마을이 군이나 현의 소재지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표. 2와 같으며, 최대 27 km, 최소 1 km 이며 평균 10 km 이다. 평균 10 km라면 전통적인 거리단위로 이십오리이며 이는 꽤 떨어진 거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씨족부락은 그 지방을 통치하는 수령이 주재하는 官衙로부터 떨어져서 관의 간섭을 덜 받고 씨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사회를 만드는 조선시대의 경향을 알 수가 있다.

표. 2 씨족부락이 군현소재지로부터 떨어진 거리

마을	군현 소재지	거리 (km)	마을	군현 소재지	거리 (km)
勝山	진주	16	松亭里	김해	12.5
竹田里	의령	17.5	東大洞	창원	27
坪館	함안	4.5	鶴洞	고성	15
柳原	칠원	3	松溪里	고성	10
舞沂	칠원	2	虎頭	거창	20
牟山里	창녕	5	雲山里	하동	10
校洞里	밀양	1	下介坪里	함양	6.5
竹東里	밀양	6	山圃里	거창	14
竹西里	밀양	6	薑川里	거창	10.5
石川	울산	12.5	葛溪里	거창	13
松亭	울산	4.5	武陵	초계	4

2-2. 지형적 입지

22개 마을이 위치한 곳의 지형적 입지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축척 1/25,000의 지형도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마을의 범위와 위치를 확인하고 하천, 경작지, 도로 및 산악의 지형적 형태에 따라 입지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크게 5종의 입지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계곡, 평야, 山麓, 분지 및 해안이다.

이들 중 계곡에 위치하는 마을이 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평야에 위치하는 마을은 6개소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산록에 위치하는 마을은 4개소, 분지는 3개소, 해안은 1개소였다. 5개의 입지유형과 해당마을은 다음과 같다.

계곡 - 죽전리, 평관, 무기, 학동, 송계리, 운산리, 갈계리, 무릉(8개마을)

평야 - 모산리, 송정, 송정리, 동대동, 하개평리, 강천리(6개마을)

산록 - 교동리, 산포리, 죽동리, 죽서리(4개마을)

분지 - 승산, 유원, 석천(3개마을)

해안 - 호두(1개마을)

2-2-1. 계곡입지

한국의 지형의 특성은 산악이 많다는 점이며, 이 산악은 산맥으로 이어지며 산맥의 밑에는 계곡이 형성되고 하천이 흐르게 된다. 계곡에 입지하는 마을이 대상마을 22개 중 8개로 전체의 최다수인 36.4%를 차지하는 것은 한국지형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계곡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모두 같은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니며, 계곡의 형태에 따라, 비교적 기다란 계곡의 중간에 마을이 위치하는 경우(평행형), 두 개의 계곡이 합하는 곳에 마을이 위치하는 경우(합류형), 계곡이 마을이 자리한 곳에서 포켓처럼 약간 넓어진 경우(포켓형), 계곡이 자루형으로 끝나는 곳에 마을이 위치한 경우(자루형) 등으로 나누어진다.

- A. 평행형 - 무기
- B. 합류형 - 죽전리, 운산리, 갈계리
- C. 포켓형 - 송계리
- D. 자루형 - 평관, 학동, 무릉

2-2-2. 평야입지

평야는 농업생산력이 높으므로 옛날부터 인간의 정주지로서 선호되었다. 대상마을 중에는 평야에 입지한 마을도 전체 22개 중 6개로 27.3%나 된다. 이들은 평야의 중심에 마을이 위치하는 경우(중심형)와 평야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경우(주변형)의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평야의 가장자리에 마을이 위치하는 경우는 마을이 평야와 산지의 접점에 위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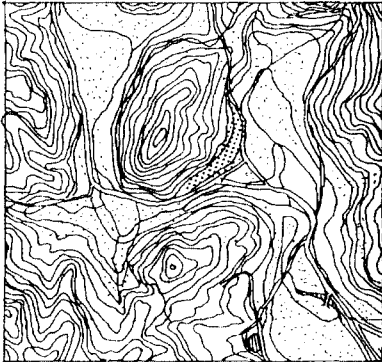
- A. 중심형 - 동대동
- B. 주변형 - 모산리, 송정, 송정리, 하개평리, 강천리



A. 평행형 1. 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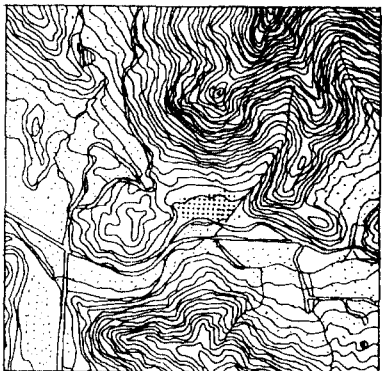
B. 합류형 1. 죽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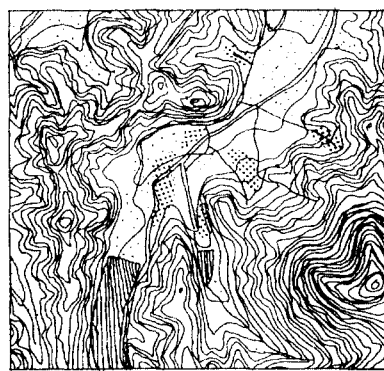
2. 운산리



3. 갈계리



C. 포켓형 1. 송계리



D. 자루형 1. 평관

그림 2. 계곡입지의 마을과 지형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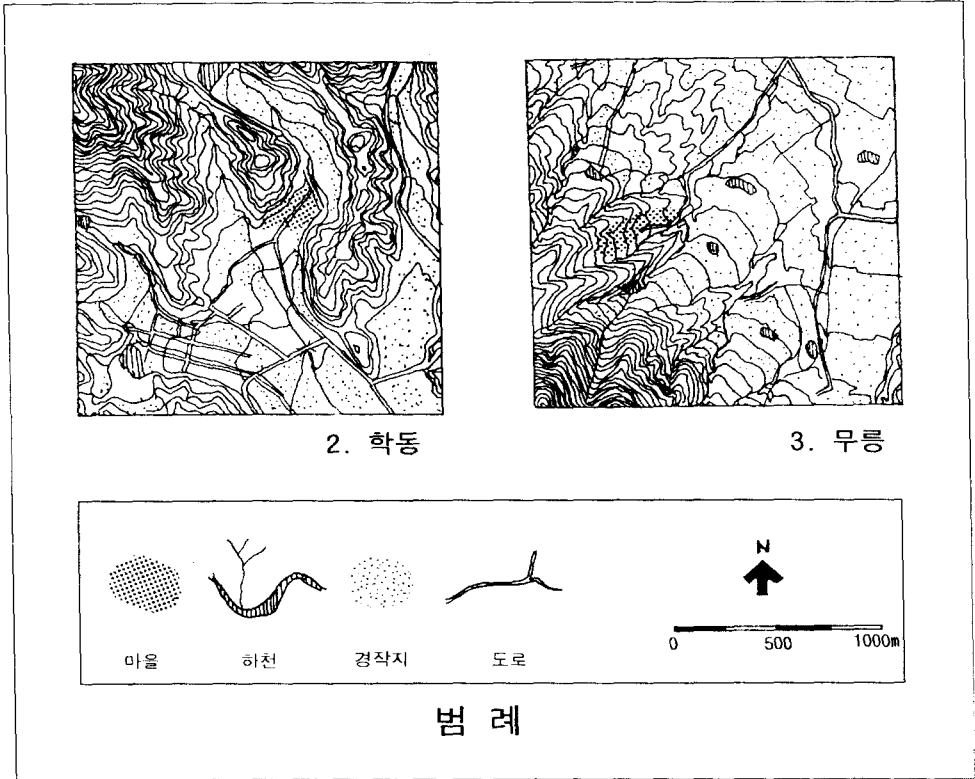


그림 2. 계곡입지의 마을과 지형 ②

2-2-3. 산록입지

산록은 산의 뿌리에서 중턱부분으로 경사면이 된다. 이러한 입지는 다시 마을을 지나는 등고선이 옆으로 평행한 경우(개방형)와 마을주변의 뒤와 옆을 산이 반월형으로 둘러싸는 경우(폐쇄형)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록에 입지한 마을은 4개소로서 전체 22개 마을의 18.2%를 차지한다.

- A. 개방형 - 교동리
- B. 폐쇄형 - 산포리, 죽동리, 죽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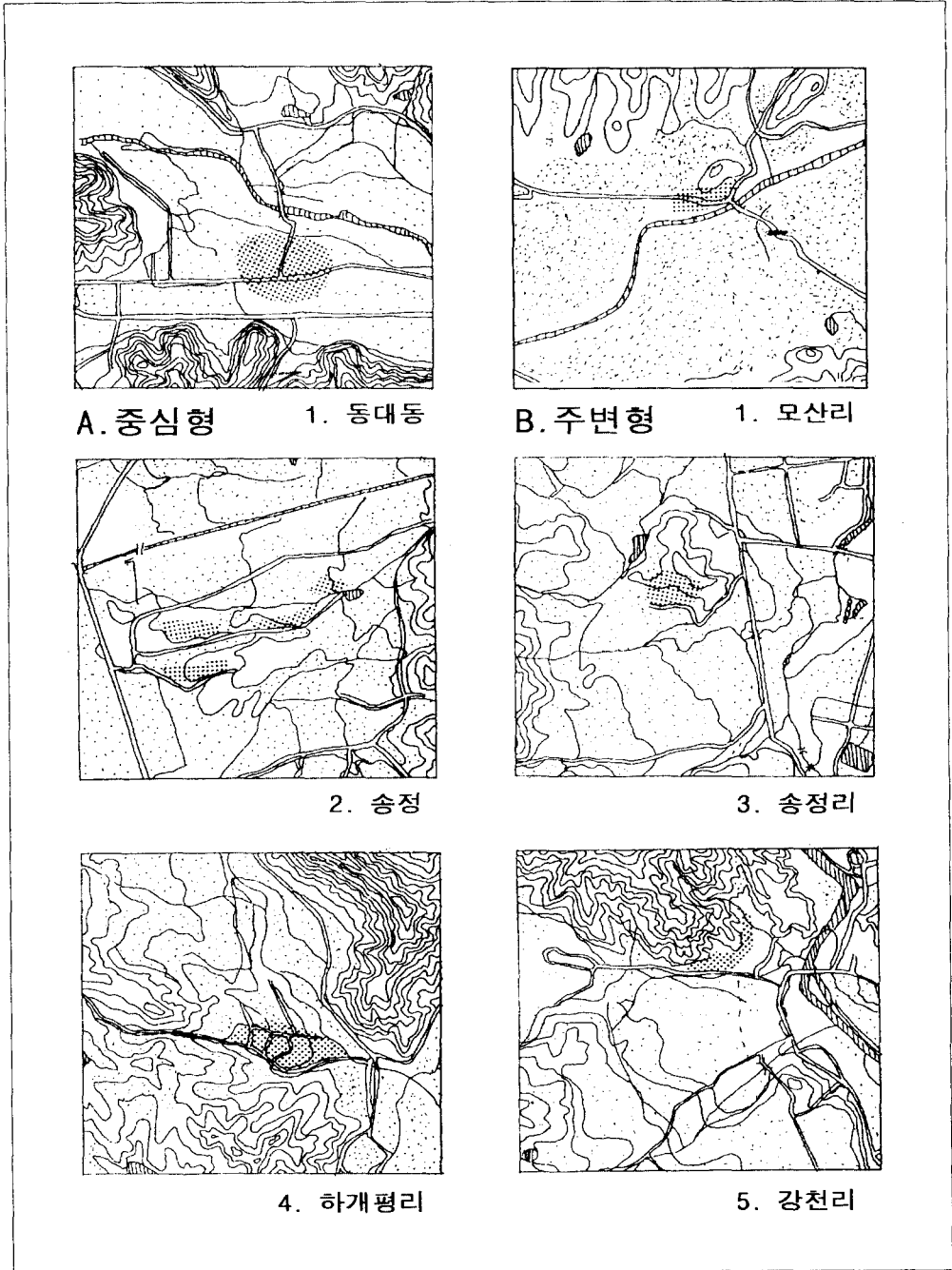


그림 3. 평야입지의 마을과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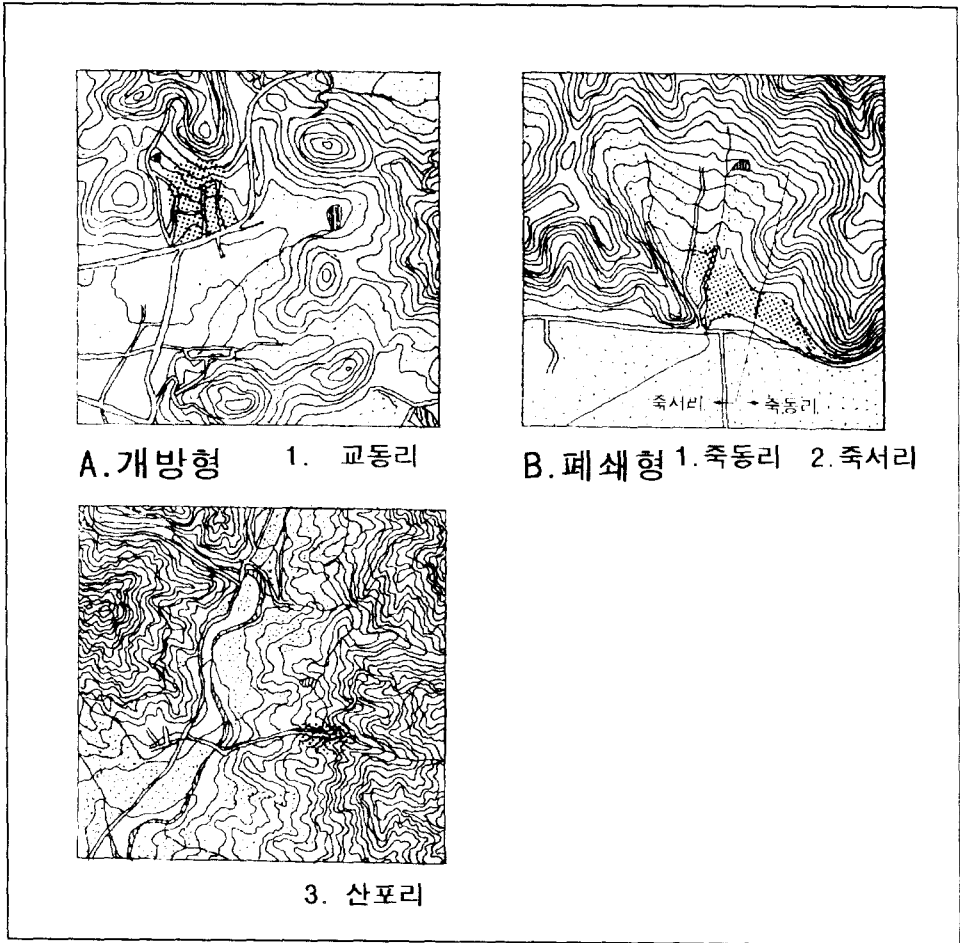


그림 4. 산록입지의 마을과 지형

2-2-4. 분지입지

분지에 입지한 마을들은 마을의 주변을 산이 둘러 싸고 있는 형태로서 3개 마을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이 마을을 둘러싼 정도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지입지의 마을들의 전체에 대한 구성비는 13.6%를 차지한다.

A. 개방형 - 승산, 유원리

B. 폐쇄형 - 석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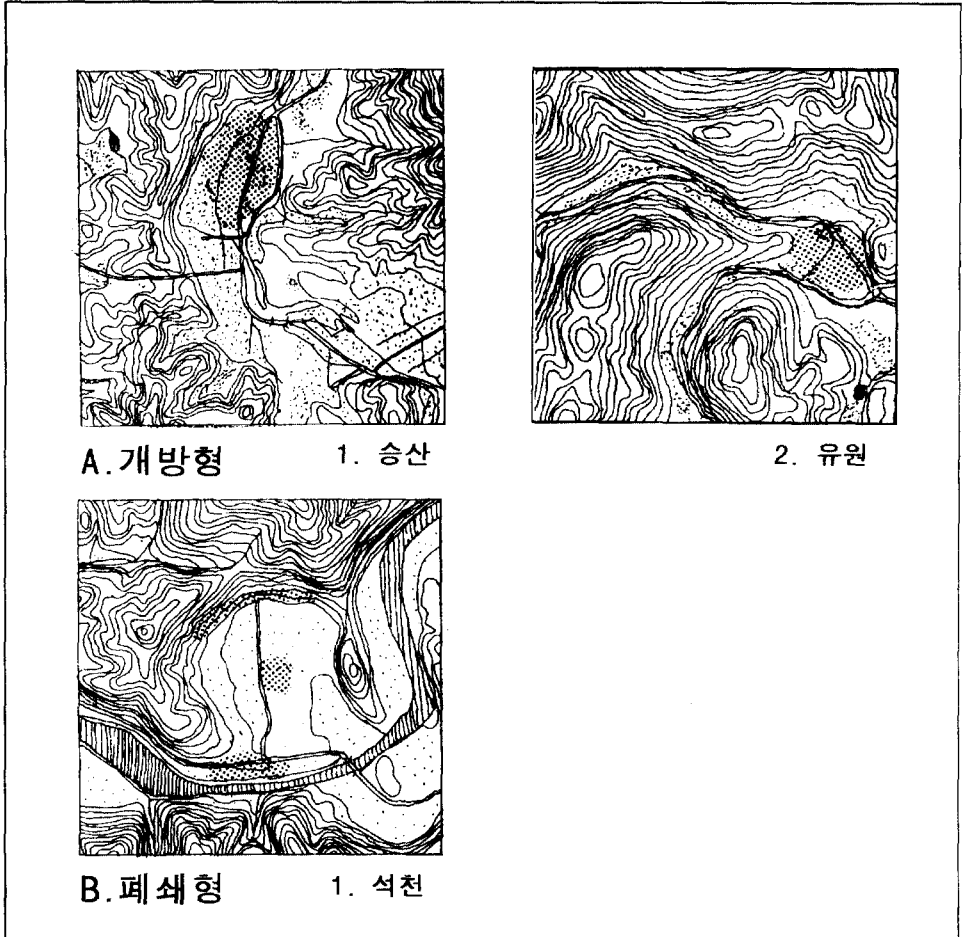


그림 5. 분지입지의 마을과 지형

2-2-5. 해안입지

대상 중 유일하게 호두마을 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마을은 용초도라는 섬의 동쪽부분의 북측해안에 자리잡은 어촌이다. 배가 접안하는 방파제 주위의 좁은 평지와 산으로 이어지는 경사지에 마을이塊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택들은 바다를 보고 있다. 바다를 빼고 지형을 보면 산록입지라고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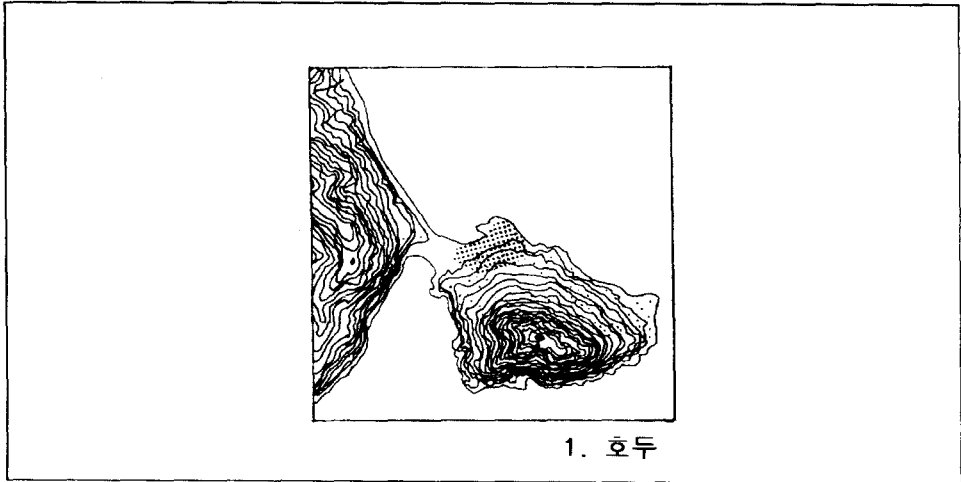


그림 6. 해안입지의 마을과 지형

2-2-6. 더 큰 범위의 분류

이상의 입지를 크게 나누어 산지와 평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산록입지(4개소)와 계곡입지(8개소)는 모두 산과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이들 두가지 입지유형을 더하면 산지입지는 12개소가 되어 전체의 54.5%가 된다. 분지입지(3개소)의 경우를 평야입지(6개소)에 합하면 평야는 9개소로 전체의 40.9%가 된다.

3. 마을의 내부배치

3-1. 마을의 형상

마을의 형상은 크게 나누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塊村과 군데 군데 떨어져서 군락을 이루는 散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이 괴촌을 이루고 있으나 평관, 석천, 송정의 3개 마을은 산촌의 형상을 띠고 있다. 평관은 6개의 소마을이 전체를 이루는 형상이며 석천과 송정의 경우는 3개의 소마을이 전체를 이룬다.

괴촌의 경우는 다시 타원형, 반월형, 선형,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타원형이 13개 마을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씨족마을들은 군집을 이루되 중앙이 두터워지는 형상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유형과 이에 해당하는 마을들은 다음과 같다.

타원형 - 승산, 유원, 무기, 교동리, 죽서리, 송정리, 봉대동, 학동, 송계리, 호두, 하개평리, 산포리, 무릉.

반월형 - 운산리, 강천리, 갈계리

선 형 - 모산리, 죽동리
삼각형 - 죽전리

3-2. 진입방법

대부분의 마을은 외부에서 마을로 진입할 때 눈에 띄지 않도록 위치하고 있는데 송산, 교동리, 동대동, 강천리의 4마을은 진입할 때 마을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마을입지가 계곡이나 산지에 있어서 먼 곳에서의 시선이 차단되는 이유 하나와 평야에 입지한 경우에도 평야주변의 산지에 마을이 자리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마을에 진입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진입로가 마을의 앞이나 옆을 통과하는 경우(통과형), 마을의 중앙을 통과하며 지나가는 경우(관통형) 및 진입로가 마을의 입구에서 끝나는 경우(종점형) 등이다. 호두의 경우는 진입을 바다로 하여야 하므로 비교가 부적절하다.

각 유형과 해당마을은 다음과 같다.

- 통과형 - 죽전리, 평관, 유원, 무기, 교동리, 죽동리, 죽서리, 송정, 동대동, 송계리, 운산리, 하개평리, 강천리, 갈계리(14)
관통형 - 송산, 모산리, 석천(3)
종점형 - 송정리, 학동, 산포리, 무릉(4)

3-3. 마을길

마을길의 형성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모양은 매우 불규칙하여 분명한 유형으로 분류되기 힘든 경향이 있다. 계곡이나 산지에 의해서 지형적으로 제한이 될 경우에는 나뭇가지 형태가 나타나며, 평지에 마을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물 형태가 되어 각 지역간의 연결이 원활해지는 형태가 된다. 또한 나뭇가지 형태와 그물 형태가 겹쳐지는 복합적 형태도 나타난다.(그림 7. 참조)

- 나뭇가지형 - 평관, 무기, 모산, 죽동리, 죽서리, 송정, 동대동, 학동, 운산리, 산포리, 강천리, 갈계리(12)
그물형 - 송산, 유원, 교동리, 호두, 하개평리, 무릉(6)
복합형 - 죽전리, 석천, 송정리, 송계리(4)

3-4. 주택의 향

한국의 전통마을에서 주택의 향은 보통 남향을 선호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주택의 향을 분석해 본 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 22개 마을 중 주택의 향이 남쪽인 경우는 12.83개소로 전체의 58.3%가 된다. 남동 3개소와 남서 2.33개소를 합하면 남동~남서향은 18.16개로 전체의 82.5%나 된다. 이외에는 동향 2.3개소(10.5%), 북향 1개소(4.5%), 서향 0.5개소(2.3%)이다.

주6) 소수점이 나오는 이유는 1/2의 주택들이 남향하는 경우는 0.5, 1/3의 경우는 0.33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의 향을 결정하는 요소는 마을의 지세라고 볼 수 있다. 마을의 지세는 첫째로 마을뒷산이 바라보는 향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계곡이 비교적 좁을 경우인데 계곡의 바깥쪽(입구)을 바라보는 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택의 향은 주택이 자리잡은 곳보다 지형이 낮아지고 시야가 트인 쪽으로 향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학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마을은 마을의 뒷쪽과 앞쪽에 비교적 기다란 뒷산과 앞산을 두고 있으나 산의 지세는 남향은 아니다. 뒷산에 근접한 주택들은 앞산쪽으로 향하여 남동향하고 있으나 앞산에 근접한 주택들은 계곡의 입구쪽을 향하여 남서향하고 있다. 따라서 뒷산을 배경으로 한 주택들(南東向)은 뒷산의 지세를 따른 셈이 되고, 계곡의 입구를 향한 주택들(南西向)은 계곡이 흘러가는 지세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송산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주택의 향이 정해진다.

지세와 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평관마을 뿐인데, 이 마을은 散村形 마을로서 지세의 일부는 북향하는 자루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경우 주택들은 남향하고 있다.

특기할 마을로서 호두가 있는데 이 마을은 유일하게 지세와 주택의 향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

주택의 향이 남향인 마을들은 다음과 같다.

남향 - 송산(1/2), 평관(1/2), 무기, 모산리, 교동, 죽동리, 죽서리, 석천, 송정, 송정리, 동대동, 송계리, 산포리(1/2), 강천리(1/3), 갈계리

3-5. 주요장소와 위치

현재까지 마을에 존재하거나 존재의 흔적을 알 수 있는 주요장소로는 종가, 재실, 당산나무 및 景勝地이다.

3-5-1. 종가

종가는 씨족마을의 종법체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주택이다. 이들의 위치는 대개 마을의 중심과 가까운 요지에 위치하지만 진입로에서 약간 떨어져서 소위 보호받는 곳에 자리잡는다. (그림 7. 참조)

3-5-2. 재실

재실은 씨족구성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공동건축으로 문중회의 외에 휴식, 학습, 숙박 등에 요긴하게 이용된다. 이들은 종가 주위에 자리잡기도 하지만 마을의 입구나 뒤편에 자리잡아 눈에 잘 띄이며 재실에서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에 자리잡는다.(그림 7. 참조)

3-5-3. 당산나무

유교적인 철학관은 전통적인 地靈신앙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마을의 상류층인 씨족가문에서 이들을 중요시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죽전과 호두마을에서 당산나무를 중요시하고 있었다. 이 나무에는 음력 정월 제사를 지내서 일년의 평안함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인근의 산에 자리잡으며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진다.(그림 7. 참조)

3-5-4. 경승지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경승이 될만한 장소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숲, 바위, 절벽, 하천

등으로 이루어지며 그 위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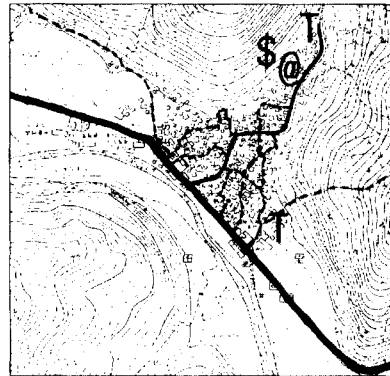
4. 결 론

善生永助가 선정했던 경상남도내의 특색있는 씨족마을 22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마을의 지형적 입지와 내부배치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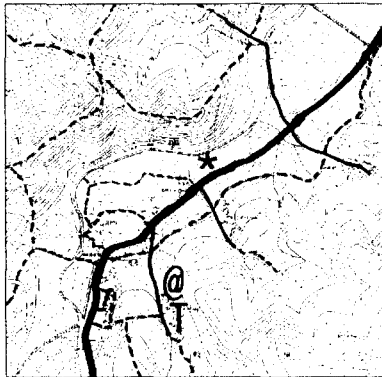
씨족마을들은 지방수령의 治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서 관청의 간섭을 덜 받을 수 있는 장소들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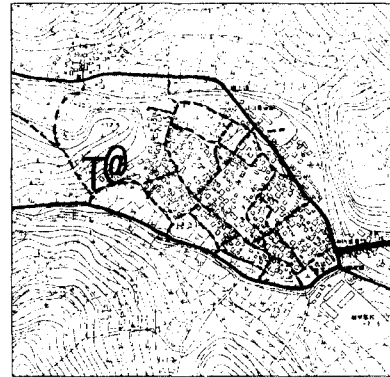
1. 승산



2. 죽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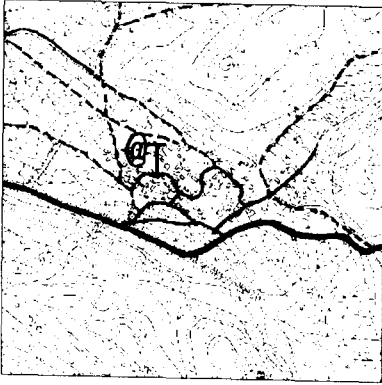


3. 평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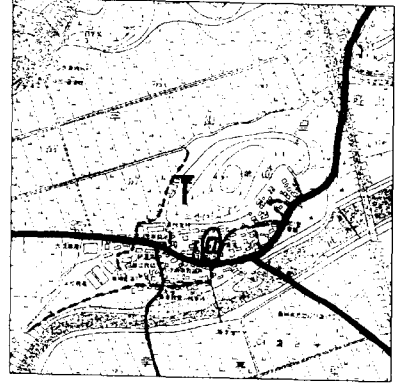


4. 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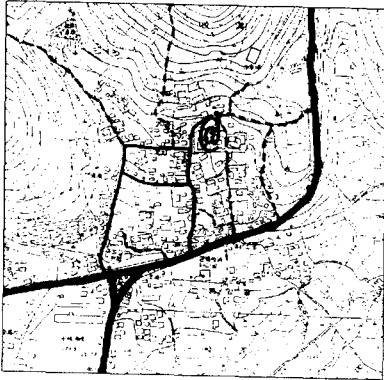
그림 7. 각 마을의 길과 주요장소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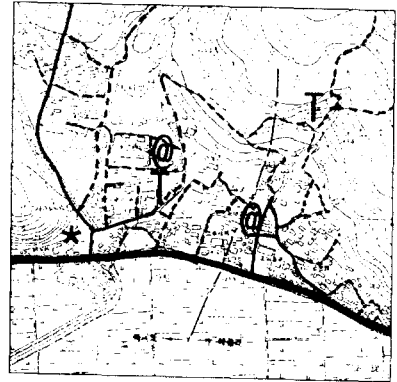
5. 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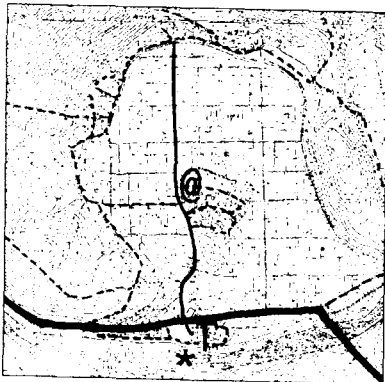
6. 모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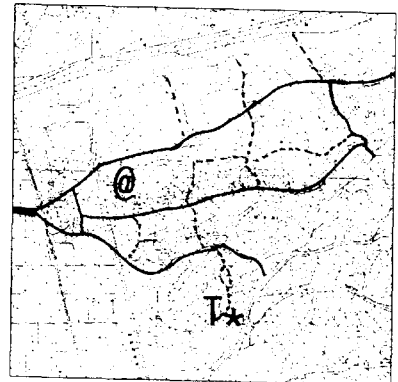
7. 교동리



8. 죽동리 9. 죽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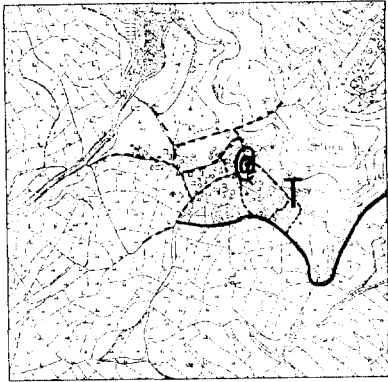


10. 석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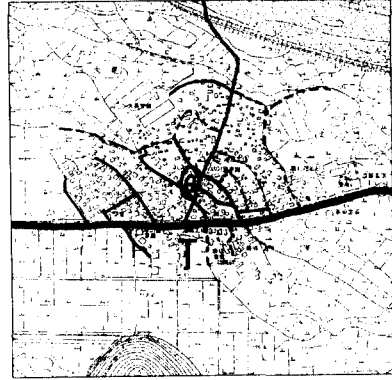


11. 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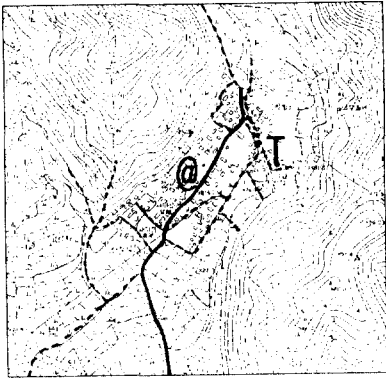
그림 7. 각 마을의 길과 주요장소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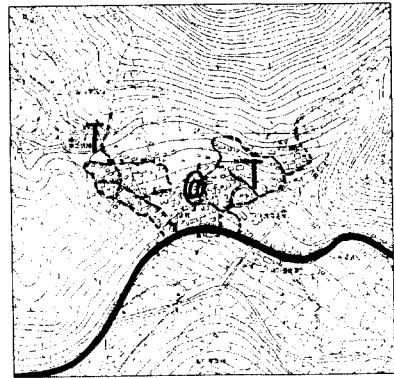
12. 송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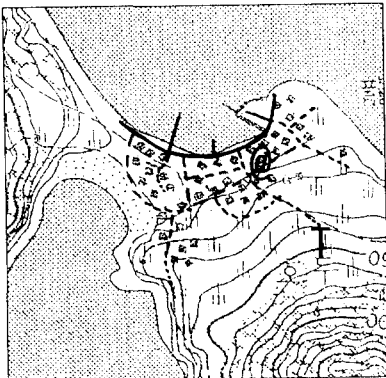
13. 동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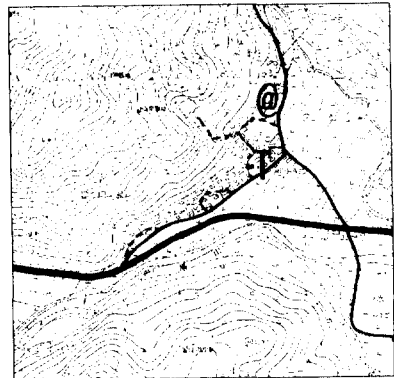
14. 학동



15. 송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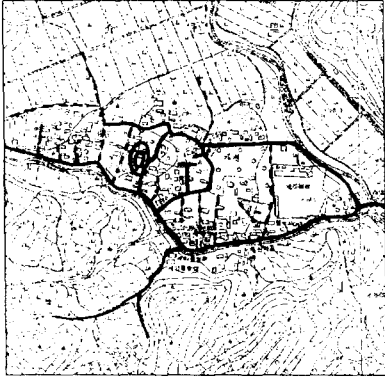


16. 호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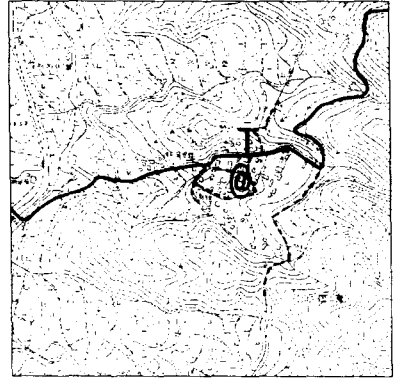


17. 운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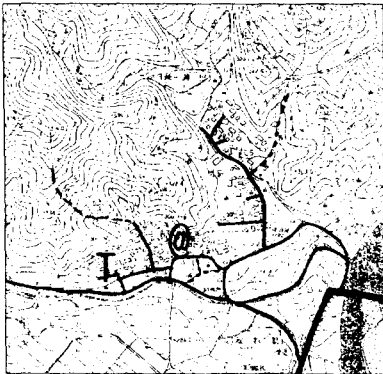
그림 7. 각 마을의 길과 주요장소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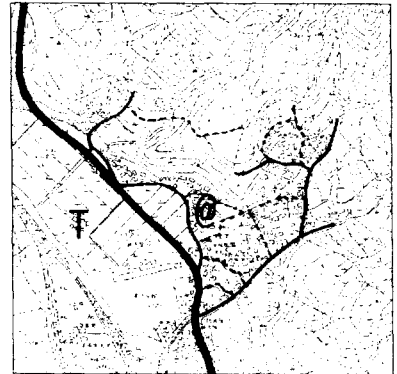
18. 하개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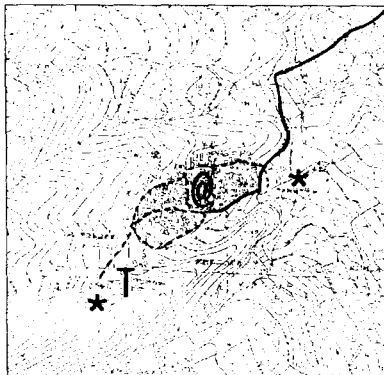
19. 산포리



20. 강천리



21. 갈계리



22. 무릉

@	:	증	가
T	:	재	실
\$:	당	산
*	:	경	승 지
		범	례

그림 7. 각 마을의 길과 주요장소 ④

마을의 지형적 입지는 계곡, 평야, 산록, 분지, 해안의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중 계곡입지의 경우가 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평야(6개소), 산록(4개소), 분지(3개소), 해안(1개소)의 순이었다. 산록과 분지를 산지라는 넓은 범위의 입지로 보면 12개소가 되어 전체의 54.5%가 되는데 이는 산지가 많은 경남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마을의 형상은 대부분 주택들이 밀집된 괴촌으로 19개소(86.4%)가 이에 해당한다. 괴촌은 다시 그 형태가 타원형, 반월형, 선형, 삼각형 등의 모양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타원형 형상(13개소)이 가장 많다.

마을에 진입하는 방법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통과형, 관통형, 종점형이 그것으로 이중 통과형이 14개 마을로 가장 다수(전체의 63.6%)이다.

마을길의 형태는 나뭇가지형(12개소:54.5%), 그물형(6개소:27.3%), 복합형(4개소:18.2%)으로 나누어진다.

주택의 향은 마을의 산과 계곡이 이루는 지세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남동~남서향이 전체의 82.5%나 된다.

마을에는 대부분 종가와 재실이 존재하고 일부에는 당산나무와 경승지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분석으로 볼 때 경남지방의 전통마을들은 산지와 평야에 입지하고, 그 내부배치는 유교문화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유기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이규성, 朝鮮時代 氏族마을의 住居平面類型 연구 -慶尙南道 山淸 丹溪마을-, 울산대학교 공학연구논문집 제24권 2호, 1993.
- , 朝鮮時代 嶺南班村的 形成과 發展에 關한 研究, 울산대학교 공학연구 논문집 제22권 1호, 1991.
- , 金一鎭, 한국 전통마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경남 산청 단계 마을을 중심으로-, 建築歷史研究 第2卷 1號(通卷 3號), 1993. 6.
- ,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 마을의 구성, 건축역사연구 제3권 1호(통권 5호) 1994.6.
-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7.15.
- 김택규, 氏族部落의 構造研究, 一潮閣, 1986.
- 고승제, 韓國村落社會史研究, 一志社, 1977.
- 강만길,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 전봉희,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8.
- 善生永助, 朝鮮의 聚落(上中下卷), 朝鮮總督府, 1935.